

## 제 10강 보들레르

### ◆ 1교시: 보들레르의 산책자로서의 벤야민

#### ▲보들레르

보들레르가 어떻게 바로크적이다, 알레고리 아니 바로크가 아니죠. 알레고리를 가지고 현대를 보는지, 자기 시대를 보는지,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현재화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좋을거 같아요. 1859년 살롱이라는 데서 이 사람이 처음 미술평론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이런저런 현대성, 모더니티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자기 시대 화가들에 대해서 얘길 많이 하고, 이미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들레르의 시가 보면, 실제로 그 자체로 알레고리화처럼 보이죠. 세 번째 단락의 인용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명 속에서 늙어가는 대도시를 보편적 삶의 가장 중요한 기록을 세워놓은 대도시의 하나를 횡단하노라면, 파리지겠죠. 별나라를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키가 큰 부동의 인물들이 침묵의 언어로, 영광이나 전쟁이나 학문이나 순교의 장엄한 전사를 이야기하다. 끝없이 열망해온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뛰쳐나온 땅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과거에는 평생의 열정이었지만, 열정의 상징이되는 것들 연장, 검책, 횃불, 생명의 횃불 이런것들을 과시하거나 응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바로크시대의 어떤 알레고리든 아니든 자기식으로 19세기 알레고리로 만들었던 간에, 보들레르가 알레고리를 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시대가 굉장히 낯설게 보였던 거예요. 19세기가 굉장히 어리석고 그런 시대를 굉장히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나는 시인이야라든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등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일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본 사람들에 의하면 보들레르 안에는 세사람이 동시에 살고 있었다. 세명 모두 되게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각각 또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이..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하는 썬인데, 종교가 가진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 도시적인 삶의 형식이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과학을 숭상하는 그 시대의 정신, 그런 것들이 보들레르를 둘러싼 환경이었고 그런 시대 정신들이 보들레르 자신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것들과 보들레르는 평생 불화하며 살았고, 평생이 늘 슬픈 전리품같은 분위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마치 지속적인 기억창고속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지속이란 말은 베르그송적인 의미에서의 기억이란 거죠. 어떤 기억들을 달고 다니는데, 온갖 냄새가 애를 불러내서 이것들과 혼합된다. 파리자체가 하나의 지속이고, 뿌리깊은 삶의 형태이고, 하나의 기억이다. 어디어디가다보면 뭔가 마주치게 되고 마주칠때마다 어떤 기억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쭉 보여주죠. 자기 시대 혹은 자기가 속한 어떤 시대 자기 자신과 불화하면서 하나의 지속이고, 뿌리깊은 삶의 형태이며 기억인 도시, 빠리를 산책하죠.

#### ▲산책자

산책자라는 어떤 화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 다 자기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19세기에 태어난 인종이기도 해요. 산책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 전에는 길을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지금 네티즌이 19세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그 이전 시대에는 산

책자라는 존재가 불가능했던 시대. 산책자란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 건데, 산책자들은 생산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거 하면 노동자들을 부리고 노동자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자본가가 아닌거예요, 어떤 생산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거죠, 그 밖에 사는 사람, 시대 밖에 사는 사람이기도 한거죠. 경영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거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서 산책자가 있는데, 산책자는 또 시대에 만들어진 군중, 이리저리 거리를 휩쓸고 다니고, 군중이 가능해 진 것은, 아케이드가 쪽 몰락하고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혹은 광장, 공공의 장소들 이런 장소도 생기고, 도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뭔가, 생산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익명으로 스쳐가는 사람들, 군중이란 덩어리 매스로 있게 되는데, 이 산책자는 군중들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 안에 어깨 부딪히고 다니기도 하지만 군중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 자의식이 있는거죠. 자기 나름대로, 밖에서 또 군중들을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불화, 계속, 존재 안에서 불화하고, 세계 다른 타인들과 불화하고, 시대정신과도 불화하고, 이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인 셈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기억은 이 도시를 걸으면서, 고대적인 어떤 것들을 현실 속에서 발견해내는 알레고리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쪽 진행을 하죠. 때로는 창녀, 매춘부들에 대한 것도 있고, 오래 산 노인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떤 여인에 대한 것도 있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얘길 하는데, 때론 여성을 노예로, 짐승으로 볼 때도 있지만, 때론 순진무구한 성모로 보기도 하고, 악마는 악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패배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희생자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혹은 진보라는 것을 굉장히 저주하고, 산업화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또 그 문명을 두려워. 자기가. 독특한 생명감을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두가지 감정들을 왔다갔다하고 그러죠. 과거와 현재를 다른 세계관 다른 인생관을 통해서 쪽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이것은 의지의 결작, 감정을 끌어내는 솜씨의 결정판을 보여준다고 이제 자기 시대, 동시대인물인 보들레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길하죠.

### ▲알레고리적 시선1

벤야민이 정리를 하는데 뭐라하냐면, 보들레르의 가장 깊은 결의가 뭐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 그러니까 진보하고 변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런 속도, 이런 세상의 흐름, 이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성 조급함 분노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흐름을 중단시키겠다는 결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심장을 찌르려고 하고, 반복해서 그 심장을 향해서 뭔가 겨누고, 작품에서 죽음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태도때문인 것이다라고 보들레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벤야민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알레고리적 시선은 아우라를 만들게 해주는 시선이기도 하고 세계의 진행을 중단시켜주는 시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베를린에서의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하면 저 불가리아 산맥, 상품점의 배열 그것이 도시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보들레르가 자기 시절에 가졌던 파리의 감정과 굉장히 비슷한 감정인 것이죠. 어렸을 때 베를린에서 느꼈던 것은 19세기 후반 이럴 땐데 고 때의 감각이 자기의 감각을 전치시켜서 들여다 보죠. 그 지역의 도시를 사실을 보들레르가 가장 잘 표현했던 셈이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꾸르베의 그림 있잖아요. 중앙에 화가가 있고, 좌측에 농부, 노동자, 어린이, 죽어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시대의 약자나 소수자들이 한쪽편에 있고, 또 우측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좌익이잖아요. 좌파적인 사람. 그것도 웃긴건데, 그런 사람들이 왼쪽에 짝 있고, 오른쪽에 보면 부르주아들, 사교계 여성도 있고, 음악가 시인, 예술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표상하는 것들이 짝 있어요. 그 끝에 보들레르가 있었고, 화가 뒤켠에 고대의 신화 속에서나 튀어나올법한, 그렇지 않으면 바로크시대의 상징화속에서 나올법한, 이런 어떤 여인이 딱 그 화가 등 뒤에 있죠. 알레고리라 하는 것은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알레고리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주의 화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꾸르베라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리얼리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렇게 말하면 낡은 것 같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렇지만 하지만 꾸르베 당대에는 낯설고 새로운 거였죠. 바로 그 전 얼마 전까지는 바로크회화들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상적인 것들 서정적인 것들, 미적인 것 어떻게 최대한 과장해서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 장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었을 건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를 그린 다는 등, 그 대상들, 그려낸 대상들도 정말 쓸모없는, 그 시대의 감수성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들을 그리고 다닌 거잖아요. 자화상도 그리고 옆집 사는 개도 그리고 별별 그런 것들. 바로크 시대만큼 이상적이고 과장적인 것들이 그 뭐 19세기를 풍미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술이 재현하는 세계는 어쨌든 현실 그자체하고 좀 다른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대였던 거였죠. 19세기만 해도, 그랬던 건데, 그 시대에 오히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회화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 조차가 굉장히 낮선 것이었을 것 같아요. 꾸르베 작품들은 당대의 예술을 조롱하거나, 예술을 가치 절하하는 그런 것 아니냐, 지금 예술을 조롱하는거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이 꾸르베를 조롱하고, 꾸르베는 세상을 조롱하면서 계속 같은데, 보들레르가 꾸르베를 이해한 굉장히 드문 사람 중 하나였던 거였죠. 이 사람들이 서로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는데, 꾸르베는 자기 초상화시리즈에 하나를 보들레르를 그림으로써, 뭐. 그 호의를 표시했고, 또 어떤 작품을주기도 하고, 보들레르는 새로운 시대의 참된 화가다라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꾸르베를 위해서 대필 청원서 이런 것을 쓰기도 했었고, 작품 목록에 중요하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48년 2월 혁명 때 보들레르가 바리케이트에 있었는데, 어떤 잡지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때 쓴 잡지에 썼던 글이 어떤 것들이 보들레르가 쓴게 아닐까 추측을 하는게 있는데, 거길 보면 나와있죠.

### ▲알레고리적 시선2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 부르주아혁명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들레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출신성분도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돈많은 집 아들이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였지만 보들레르를 되게 기대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근데 얘기 도시에 와가지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펑펑 쓰자, 애네 엄마가 원래 애네 아버지가 갖고 있던 유산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쥐야 되는데, 하도 돈을 막 쓰고 다니니까, 법원에다가 금치산자 신고를 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지 돈을 자기가 못 쓰죠.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궁핍하게 살죠. 그리고 막상 보들레르가 죽고 난 뒤에 재산이 이만큼 남아있고,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보들레르가 그 2월 혁명에도 참가하고 그랬대는데, 그 다음에 시쓰고 글쓰고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 아닌 것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관점이 확실히 나이브한 것이죠.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라던가, 아까 벤야민 정의했듯이, 세상을 정지시키겠다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자기 시대와 불화하는 자,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혹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 숨겨져있는 진짜 모습, 이런 것들을 벗겨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시인은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군중들로부터 부르주아로부터 자기 계급의 부르주아지만, 부르주아 혹은 어떤 자기 의식도 지니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도 지니지 못한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보들레르의 위치였고, 그게 산책자의 거리감각 얘기도 하고 그렇죠. 벤야민이 보들레르에게 주목했던 것은 쾌락가, 소비의 환타스티마고리아가 가지고 있던 제 1제정기의 분위기, 또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이죠. 그의 위치가. 보들레르의 시에서 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서정시를 쓸 수 없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예술의 세계가 이상적인 뭔가가 있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미적인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있어. 그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예술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술에서의 목적론적인 사관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짜 다라고 파헤치면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게 드물었었는데, 그 드문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쿠르베도 있었고, 보들레르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벤야민은 보들레르를 운명의 별이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이 먼곳은 이상향으로써의 먼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화하면서 고대적인 무엇인가를 다시 현재화 시켜서 현실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필로 보여주는 알레고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먼곳은 이상향을 그리는 예술가들의 먼곳과 다른 먼곳인 거죠. 어... 운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먼곳의 이미지들, 그의 시에서는 먼 옛날의 바다. 파리의 안개속에서 떠오르는 외딴 섬 이런 걸로만 이런 먼곳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외딴 섬의 흑인여성이 없는 검은 병원은 드물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거죠. 흑인여성이 왜 나오죠 대체, 흑인여성의 육체는 능멸당했고, 이 형상들 속에 먼 곳에 있는 것이 보들레르가 가까이서 발견한 것, 제 1제정기 팔의 바다를 불복한다. 실제로 신성하거나 과거에 보전되어 있는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것들은 현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숨어들어가 있는지 말할 수 있겠죠. 보들레르는 먼 곳을 지금 여기로 끌어당기면서 알레고리화하면서 자기 운명에 반항했던 것이죠. 이 먼곳들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파괴되어 버린 어떤 것이고 또, 자본주의 혹은 인공적인 것에 의해서 능멸당해서 없어져 버린 것들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르베처럼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는 알레고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파리에 파리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보들레르 시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파리 거리를 산책하고 돌아다니면서 쓰고 있지만 묘사하지 않거든요, 이사람은. 아케이드 이런 얘기도 안나오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지, 풍속에 관심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보면은 진짜 알레고리로 쓴 시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면, 이곳의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19세기 파리에서의 인생은 병원과도 같다고 보들레르는 생각했어요. 나에게도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항상 좋을 것처럼 생각되는 뭔가가 있다. 이같은 자리를 바꾸는 문제가 내가 나의 영혼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문제다. 나의 영혼은 폭발하고, 영혼은 현명하게 외친다. 아무곳이라도 장소, 아무곳이라도. 그것이 이 세상 밖이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인식이 시인으로 하여금. 현실을 아주 기괴한 형식으로 비틀어 버리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거나 알레고리화 하거나, 이렇게 나아가

게 하는 것이죠. 병원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현실감각은 현실을 바라보는 감각, 도시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보다 빨리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인으로 하여금 그 속도에 인제. 같이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죠. 개미떼처럼 우글대는 도시, 꿈에 찬 도시, 대낮에도 유령들이 달라붙는 도시, 신비는 술처럼 흘러내리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주정뱅이와, 흥분해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질겁하고, 병이 난든 맥이 풀리고, 신비와 부조리, 정신을 잃고, 충격입고, 열어나고 당황하고, 이게 인제 이 사람이 자기 시대를 경험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 ▲댄디와 보헤미안

어떤 예술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나 놀라움보다 더 기괴하고 자극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격적인, 근데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 질겁하고 문단을 수밖에 없는 정신일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이 19세기에 사람들이 대체로 겪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 시대와 만나는 방식이 인제 이렇다는 거예요. 음.. 보들레르가 악의 꽃과 파리의 우울을 노래하고, 해골과 죽음과, 파괴가 난무하는 알레고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까지만 해도, 현실 그것보다 더 놀랍진 않았을 것 같다. 보들레르의 운율들, 운율들이란다. 의도를 보면 나의 시가 알레고리가 악마로부터 왔건 하느님으로부터 왔건, 뭘 상관이나. 천사건 뭐건 무슨 상관이나. 세계를 덜 추악하게 하고, 시간의 무게를 덜어줄수만 있다면 되겠냐. 세계가 지니고 있는 속도. 속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보다 나은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들레르는 도시로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염증을 느끼면서도 매혹적인 어떤 기분을 느끼기도 해요. 도시 비판자인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도시에 사로잡힌 댄디이기도 했죠. 친구들의 말이면 사진보면, 보들레르는 굉장히 멋쟁이잖아요. 늘 꾸미는 것 좋아하고 장갑끼고 다니고 풀떡인 와이셔츠에다가 근데 그걸 그렇게 묘사한대로 읽어보면 완전 너무 웃겨요. 그 시대 패션이 다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멋쟁이. 댄디들은 늘 그렇게 꾸며야 되는 거죠. 댄디와 보헤미안은 다르거든요. 계급적 차이가 있어요. 댄디는 일단 부르주아의 의상 있는 집 자식들인데 괜히 멋부리면서 세상에 실증 느끼고 다니고 그런 무책임한 인간들, 철없는 도련님 스타일 이런 사람들 많고, 보헤미안은 노동자 출신들이 많아요. 애네들은 진짜 밑바닥 배고픈거 아는 거죠. 진짜 배고픈거, 애네들은 있는데 다 써가지고 배고픈 애들이고, 보헤미안들은 출신성분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진짜 배고프고, 그래서 뻘속부터 좌파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댄디한 인간입니다. 현대성에 대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성이란 뭐냐. 대단히 일시적이고 덧없고 우연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면서 동시에 또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술에 있어서의 현대성이다 이렇게 애길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유행가로부터 시적인 요소, 시적인 요소에서 영원함을 추출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아야 되는 자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는 것을 예술의 임무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동시대적이고 그 감각적인 것들을 말을 하면서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고전적인 것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그 안에서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이렇게 이미지화 하고, 하는 것이죠. 어... 미술평론가로도 쓸 땐 예술자들 활동,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가진 보들레르한테 있어서 알레고리가 1차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은 이전시대의 예술가들의 관념을 1차로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 혹은 관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알레고리를 사용했다면, 보들레르는 도시나 인공이나 사물들이 1차적인 지각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

진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시대 사람들은 이념이나 이상이나 이데아가 인제 진짜인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 보들레르의 시대에는 진짜가 내 눈에 직감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세계, 이 세계가 1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푹푹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게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들을 알레고리 덩어리들을 보는 거예요. 보들레르는. 그것들이 다. 어..

#### ▲산책자의 기억과 미래감각

알레고리에 대한 일시적 관심은 언어적인 게 아니고 시각적인 거라는 점에서, 그림들, 뭐, 처음처럼부터의 정열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시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세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고 한 시대가, 시각적인 것들이 전면화 되고,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이 인간의 모든 감각중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떤 관념들이 외화되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외화된 알레고리 덩어리로 이 사람한테 보여지면서, 이 사람의 시가.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의도하는 것을 시로 쓰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니까 벤야민이 이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들레르는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알레고리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근데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현실 너머에 있는 눈앞의 현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현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것들을 보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무의지적 기억, 기억의 것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새로 생겨낸 카젠 광장을 지나고 있을 때, 내 풍요한 기억을 사랑하겠다. 옛 파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거기 의자는 동물놀이가 길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보았다. 어느 아침 차가운 맑은 하늘 아래, 노동이 잠을 깨고, 쓰레기 터가 고요한 공기 속에, 검은 먼지 내뿜는 시각, 우리를 빠져나온 백조 한 마리, 알곳은 숙명의 신화, 불행한 짐승은 격려된 먹이의 굶주린 딸 찾으려고 하고 있다. 파리는 변한다. 우울 속에서 무엇하나 끄덕하지 않는다. 새로 생긴 궁전, 별관, 돌덩이도, 선문밖 오래 된 거리도 모두 다 알레고리다 나한테는. 내 소중한 추억은 발보다 더 무겁다. 추억은 폴피리처럼 숨가쁘게 울려 퍼진다. 나는 생각한다. 외딴 섬에 잊혀진 뱃사람들, 포로들, 패배자들 수많은 사람들, 어느날 이 사람이 길을 가요. 그런데 길을 가다 갑자기 불행한 듯이 어떤 기억을 딱 만나죠. 이 속에 과거의 모습이 숨어져 있는 것이고, 의지적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억을 하고 얘기하고, 프루스트가 발견한 기억의 힘이라고 말했고, 그런데 벤야민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억으로 역사가 주는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애길 하나면 보들레르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기억은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집단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공 공적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를테면 축제라든가 이런 다 같이 하는 어떤 기억들, 즐거운 기억들이란거, 이런 기억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시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훈련을 하면서 인간들이,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을 무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화시키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뭔가 기념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기념비적 방식들이 다 그런거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억들을 고스란히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

고 기억의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계획하고 조작하고, 그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간 속으로 끄집어 들이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축제라든가, 일요일 같은 이런 날들 속에 인제 보면은 약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시계적인 시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일요일 노는날에 굉장히 황당해진 다는 거예요. 뭘 해야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우왕자왕하게 되고 어슬렁거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것들을 지나가면서 얼핏 슬쩍 하게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이 과거의 기억들은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어떤 경험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이 사람은 딱 갈라서 굉장히 대립적인 걸로 애길 하는데, 경험은 어떤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전통이냐면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겪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본 것이나 경험한 것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가 이제 경험이 가능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수공업적으로 장인들이, 물건하나 만들 때도, 어떤 사물의 사용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시대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경험의 시대이고, 그런 건데 그에 반해서, 사람들이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체험화 하는데 일조하는 것은 신문, 지난 주에 우리 얘기했던, 신문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경험을 듣고나 경험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식의 언어로, 정보의 형태로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의지적 기억의 형태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기억의 방식도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신체적인 감각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 뭐가 개입하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아까 보들레르가 했던가, 놀라울정도로 이상한 세상들 있잖아요 맥이 풀리고 흥분시키고 이런 충격을 주는 쇼크를 주는 세계, 그런 어떠한 세상의 충격들로부터 세상들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험적 요소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에 반해서 그것을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식의 형태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충격을 완화, 센세이션으로부터 둔감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체가 굉장히 조직된다는 것이죠. 잘. 그래서 인제 진정한 경험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꿔말하면 간접적인 체험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야기와 정보가 대체되고, 정보가 센세이션에 대체되는 그런 시대에 보들레르가 하려고 했던 것은 고대의 신화나 인물들 사건들을 기억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기억을 통해서 알레고리화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삶을 딱 정지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광장에 묻혀서 잊혀진 동물원, 백조들, 백조 애도 굉장히 중요한 알레고리로 보이죠? 뱃사람들, 패배자들, 포로들, 개인적으로 묻혀져 있던 기억들이고, 이것들이 진짜 기억의 흔적들이란 거예요. 이것들이 여전히 계속 삶의 현장이다. 그니까 알레고리는 드러난 현실 이면에 묻혀있는 현실을 폭로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보들레르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 감각이고 역사적 인식이고 이런 것이죠

## ◆2교시: 상품의 판타스마고리아와 알레고리

### ▲알레고리로서의 보들레르의 사유

보들레르 알레고리가 아케이드만큼,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굉장히 밀접한 영관을 가지고 있다고 벤야민은 말을 합니다. 상품의 진열, 특히, 유행품점들의 증가와 더불어서, 상품이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실제로 보들레르의 상상력에 지배적인 알레고리는 상품 물신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것이라라고까지 말을 하죠. 무엇보다도 파편성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보들레르 시인 백조, 앞에서 읽었던 거요. 이제 이 알레고리가 보면은 시인의 추억, 기억과 갑자기 우발적으로 확 튀어나온 기억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데, 그 기억이라는 거는 일관되거나 연대기적이거나 축적되어 있는 의지적 기억이 아니고, 어떤 길을 가면서 그때그때 딱 튀어나오는 마주치는 단편처럼 매번 다른 방식으로 파편들이 튀어나오죠 여기 저기서, 그래서 그때마다 만나게 달라요. 동물원도 만났다가 그. 중간에 과거에 또 이 사람이 만났던 뱃사람, 포로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기를 놀래키는 새로 생긴 궁전, 발판, 돌덩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기도 하고, 그것은 미리 예측되지 않죠.

벤야민이 보기에 이런 알레고리가 알레고리로서의 보들레르의 사유는 상품과 가격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일치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좀 길게 이렇게 인용을 해 봤는데, 추억이라고 여기선 애길 했네요. 무의지적 기억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추억이라 한다면 추억은 죽은 지식의 무질서한 더미에 두루 미친다. 추억에서 인간의 지식은 조각 조각 이어붙인 것 같다. 파편들 이어붙인 것처럼. 명상을 혐오하는 시대에도 포로속에서 명상의 제스처는 유지되어 온 것처럼, 알레고리를 조직하는 이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그런 과거의 추억들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마치, 명상적 제스처에 준하는 그런 것이다. 그는 마음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잡다한 재료들 여기저기서 단편들을 떼어서, 다른 단편들 옆에 놓은 다음에 그것들이 맞는지, 이것에 의미가 옆에 있는 의미에 맞는지 또 옆에 있는 것의 이미지가 다른 옆에 있는 것의 이미지에 맞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화와 알레고리화하는 방식인 거죠.

상품의 가격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예요. 맑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상품이 늘어놓는 그 가격의 결정들을 보면 사실 전혀 개연성없고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물론 계산하는 방식은 있죠. 노동량에 시간에다가 원재료 어찌구저찌구 더하고 나누고, 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붙여지는 지는 제조과정, 이후에 상품이 시장에 들어가서도, 완전하게 예상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레고리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의 경우에도 상황은 똑같다. 알레고리화가 명상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단 의미를 받아들이더라도,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구축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알레고리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쪽 수정되서 그것으로 쪽 가는게 아니고, 달라지고 장이 달라지고 하면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의미에 대한 그게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경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르게 이렇게 막 흘러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다. 의미가 유행하고 사라지는 속도는 상품의 가격변동만큼이나 급격하다. 이

런 식으로 딱 그렇게 모형들을 알레고리들화하는 방식과 실제로 19세기 상품이란게 만들어져서, 애가 이렇게 가격 가치 부여되는 방식, 가치화하는 방식이 되게 같다는 거예요. 알레고리에 의미가 부여되는 방식이나, 상품에 상품적 가치가 부여되는 방식이, 형식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방식이 되어 있다는 얘길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상품의 의미가 가격이고, 그렇죠. 애가 대체 어떤 사용가치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짜리냐,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느냐에 따라 보이잖아요 애의 가치는, 상품이 상품으로 존재하는한 그것 이외의 의미는 갖지 않는다. 따라서 알레고리화는 상품을 갖고, 뛰어난 숨씨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책자로서 그는 상품에 감정을 대입한다. 알레고리화로서 그는 상품이 시장에 등장할 때 비춰지는 가격표속에서 명상의 대상, 즉 의미를 간과한다. 내지 현실적 동일성등을 보여줍니다. 상품은 그니까 가장 현대적인 알레고리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셈이죠. 알레고리의 표면적 의미가 숨겨진 실제 의미를 숨기기 위한 어떤 걸치장이라면 상품의 가격은 그것의 실제 가치를 그 제작과정과 노동, 그 자체를 이제 은폐하는 거죠. 노동과정이 잉태되는 거죠. 그 맑스 맨날 말하는 실제로의 상품에서 노동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노동으로부터 자기가 소멸되는가를 말하는 지점을 지금 벤야민은 알레고리를 가지고 그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 셈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보들레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에... 그래서, 알레고리들은 이 세계 사람들이 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거고, 상품의 교환가치는 사용가치를 능가하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19세기 예술작품 속에서 알레고리에서 표현된 것은 그 의미를 능가한다. 알레고리가 일차적이다라고 말했죠. 그니까 원래 알레고리는 일차적인게 아닌거잖아요. 관념,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말하기 위해서 알레고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알레고리가 일차적인게 되어 버렸잖아요 보들레르한테서, 그게 인제 상품에 있어서 그것의 가치가 가격이 일차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형식적 동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벤야민이 이렇게 말하는데, 알레고리화로서 보들레르는 고립되어 있었다. 알레고리를 통해서 상품의 경험을 설명하려 했다. 설명을 제대로 인제 됐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이해했으리 만무하죠, 이시대에, 고립되어 있었습시다. 상품은 교환가치와 전시가치를 강조하면서 이 실체를 결여해버린 거죠. 생산주기와 유행의 유연성 속에서 시대에 뒤쳐진 퇴물이 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들 언제나, 늘 새로운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는 곧 쓰레기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상품이다. 그러므로 상품은 알레고리와 또하나의 공통점을 보인다. 공허하고, 무력한 상품은 폐허, 쓰레기 덩어리로서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독일 비극의 기원에서 알레고리적, 폐허로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폐허속에서 역사는 배경으로 물질적으로 녹아든다. 역사는 삶의 과정의 방식의 형식에나, 저항할 수 없는 세태인척 하지 않는다. 알레고리는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물의 영역 속에 폐허처럼 사유의 영역에서 폐허로 존재하는 무엇이다.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시다. 이젠 곱씹어보도록 하고.

### ▲군중의 충격

이제.. 군중이랑 산책자 얘길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들레르한테 자기 시대가 충격이었는데, 이 말속에는 메스가 충격이란 얘기도 있어요. 군중들이 엄청난 인간들, 가끔 우리도 충격받잖아요. 차가 엄청 밀릴 때나 사람 엄청 많을 때 저는 정말 이. 군

중의 충격이란 걸 언제 경험했냐하면 세기가 바뀌던 1999년 12월 24일날 강남역에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전철을 딱 내렸는데, 전철이 바깥에 서 있더라구요 잔뜩, 왜 안나고 서있나, 나갈수가 없는거예요. 지하도에서 못빠져나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엄청난 공포감이 확 오던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쪽팔릴꺼같잖아요. 12월 24일날 지하철에서 사람많아서 죽고 그러면. 그런 종류의 충격같은 것들을 이 시대에 사람이 많아봤자 몇만명 됐을까만은, 그래도 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집성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전에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땐 어땠을까. 땅덩이에서 적당히 사는거죠 띄엄띄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땅을 어느정도 갖고 있고, 자연하고 뭐 섞여가지고 대중 살고 이런 거였는데, 이 밀집된 것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공간적 경험은 신체를 확 바꾸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체험과 기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길 했지만 그거는 실제로 공간 밀집성이란 공간적 특성으로부터 신체적인 이 경험으로 진짜 직접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충격적인 체험 하나로서의 군중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 충격을 산책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던 것이지요. 군중 속에 둘러싸이는 재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군중을 즐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술이다. 라고 말하죠. 군중에 대해서 글도 썼어요 이 양반에 심하게 고민했으면, 어떤 선녀가 위장하는 취미, 보금자리에 대한 혐오, 여행의 정열, 이런 것들을 그에 여러 가지 붙여넣어준 장안이 대중의 인간적 개념을 희생시켜서 일종의 활력소의 환멸을 즐기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중과 고독, 자기 희생의 고독을 채울줄 모르는 자는 분주한 군중속에서 홀로 존재할 줄 모른다. 이게 산책자로서 사는 멋 같은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왕자왕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걸 즐기면서 스스로 고독해하고, 근데 이거는 쪽 시대가 진행되면은 우리 시대같으면 사유물이잖아요 이미, 무슨 인간의 소외라는 등, 얘길 하고. 왕따가 문제가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 매스의 문제가 보들레르 때에는 그 자체로 인제 어떤 새로운 사회적 현상, 사회적 존재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였다면 벤야민 시대의 군중은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익명으로 존재하고 자기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덩어리로서, 파시즘에 대중되는 동원이 된, 동원된 대중이 되는 거죠. 왜 그 대중이 문제인가 대중은 그 자체로는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프롤레타리아다 구조화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딱 계급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딱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대중이라고 해버리면은 여긴 정말 온갖가지 사람들이 다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교육과 계급과 이런 저것들이 다 섞인 사람들이 덩어리들이 막 흘러다니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애가 성격 부여가 안되는 거죠. 어떤 사물이든 존재든 간에 새로 나타났을 때 이 존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인식할 수 없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덩치가 크고 많고 힘이 쎄서 무서운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존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존재가 벤야민한테는 굉장히 문제적이었겠죠. 그 자기 시대에 파시즘의 시대에 동원되는 대중들, 실제로 나치로 파시즘이 확 물려가는 대중들, 근데 대중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다 나름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고, 다 나쁜 놈 없고 이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물려놓으면 이런 성격 저렇게 물려놓으면 저런 성격인 사람들인데, 저런 성격들을 보면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중요하다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으로부터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있는 게 드문 사람들인거죠 사실은, 어떤 대열으로부터 이탈

되었을 때.

### ▲패션, 유행

왜 사람들이 패션이란 걸 왜 얘기할까. 벤야민이 어떤 유행, 어떤 시대적인 무엇, 많은 다수가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문 사람들이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도 뭐, 지금 막 일관되게, 그 한복을 펼쳐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한복이 수백 벌있는 할머니도 나오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청바지. 누구나 스키니한 청바지를 입는데 혼자 나팔바지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옷도, 패션도 그런데, 그게 인제 안되는 거. 그랬을 때, 내가 뭔가를 할 때에도, 나 혼자서 애를 때리면 살짝 겁을 먹지만 다같이 때리면 그 속에 묻혀버리는 것. 그게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로 파시즘이란 거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건데.

군중 속에 있지만 군중에 있지만 군중에 벗어난 존재를 왜 주목하는가, 보들레르, 벤야민 다 주목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맥락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은 대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멋에 주목하면서 그게 시인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특권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상식적인 산책자는 어떤 독특한 도취를 찾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등등등, 얘길하고 있죠. 그 벤야민이 말하는 보들레르나 뭐 알렌 포가 봤던 군중들 이제 이런 군중들이 굉장히 이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장 새로운 존재로서의 군중들에 대상된 만큼 19세기 예술가들한테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움도 사실 없었을 거다. 근데 군중들이 새롭게 등장한 독서계급이기도 하고, 국민이 되는 존재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예술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자기 작품에 대한 새로운 구매자이기도 한거죠. 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럼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되는 사람들로 보들레르, 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군중은 움직이는 베일이었다. 덩어리가 아니라 흘러다니고, 이 베일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군중들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밀려나왔다가 하면서 그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파리는 어떤 도시에 대해서 얘길하고 자기 시대를 얘길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들레르는 파리의 거주민이나 파리의 모습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일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고, 그 베일은 군중이라는 베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미 군중들이 들어와있고, 내밀화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완전히 군중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굉장히 복잡한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파리를 묘사하는게 불가능했다는거예요.

그니까 왜 이 사람의 시들을 보면 파리가 진짜 안나오냐, 안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더러운 세상을 길을 잃고 군중에 떠밀리는 나는 깊숙이 흘러가는 세상을 흘러갈 때 환멸과 고뇌만 보일 뿐이고, 앞으로는 아무런 것도 없이 폭풍우밖에 보이지 않는 지쳐빠진 남자다 이렇게 얘길 해요. 근데 우린 이걸 뭐라 연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음주에 그 벤야민의 역사 혹은 정치에 대한 얘길 할건데, 역사 철학 테제라는 유명한 논문을 보면 거기 진보의 폭풍우 속에서 과거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미래의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미래의 천사의 모습이 은근히 이 보들레르가 얘기하고 있는 떠밀리면서 새로운 것도 없이 폭풍우 속에서 떠밀리고 있는 이런 지쳐빠진 남자의 형상을 그렇게 살짝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 ▲산책자 보들레르

음.. 또.. 하여튼 산책자로서의 보들레르는 자신을 우리 군중들의 일부로, 공범자로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로부터 자기는 그들로부터 격리되기도하면서 뭔갈 했는데, 꽤 깊이 그들과 결탁하고 있지만 그건 단 한번, 왜 그러냐면 경멸의, 저것들은 경멸받아야 마땅한 놈들이야 라면서 경멸성을 던짐으로써 부지불식간의 그 군중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내팽개치기 위해서만 군중속으로 돌아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쩔수없이 나는 군중이야 그러면서 들어가는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빠, 무가치한 속물들하고서 경멸을 탁 던질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경멸을 하고 있고, 하면서 하여튼 산책자로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되게 바빴겠죠. 이사람이면, 이 산책자가 산책이 이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산보다니고 이러는게, 이.. 보들레르가 왜 세상의 흐름의 속도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벤야민의 맥락에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시대의 속도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산책할 때 요즘에는 보면 개 끌고 다니잖아요. 개 데리고 뛰거나 걷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거북이를 데리고 다닌게 유행이었다요. 거북이에 목을 매가지고 애가 거북이의 속도에 맞추는거죠. 진짜 세상의 속도에 저항하는 거죠. 정말 세상의 속도에 저항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그니까 마차 다니고 말 다니고 있는데, 거북이 끌고 다니는 유유자적, 그러니까 산업의 속도에 저항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굉장히 풍자적으로. 우리도 거북이 한 마리 데리고.. 교통체증 장난아니었을거예요 산책자들 땀에.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의 위치는 완벽하게 군중들 속으로 편입되길 거부했지만 완전히 등 돌리고 외톨이로 지낼 수도 없었죠. 산책자에게 고독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니고 군중들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 쓸모없는 것들 경멸을 딱 던질 때 그거 할려고 고독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도스토프예스키의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보면 이 사람의 고독은 혼자서 느끼는 고독이에요. 그니까 친구들 찾아가고 클럽을 나가고 그러지만 굉장히 뻔뻔해하고 왜 2곱하기 2가 4냐 5가 안되는데 시비걸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하면 니들은 한통속이고 나는 외톨이구나 그런 식의 고독감을 느끼고 세계를 굉장히 다른 방식의 눈으로 보고 다르게 사는 삶, 이 특이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자기 시대와 불화하고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들은 한통속이고 나는 외톨이. 이게 보들레르의 산책자 속에 있는거죠. 근데 그 고독을 소화시키는 방법이 세계를 알레고리화 시킴으로써 자기 시대의 속도를 그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고자 했던 거죠. 이런 일을 할려고 했던 거죠. 황설수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